

동상





두근두근, 기대되는 시간



구동윤 | 대구 영신초등학교 1학년

“자, 여러분! 여기는 재활용 놀이공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신난다.”

“야호! 빨리 하자, 빨리.”

고모와 동현이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활용품으로 재활용 놀이공원을 만들었다. 짝둑 짝둑 우유팩을 잘라 물배를 만들고 페트병을 연결해서 롤러코스터를 만들었다. 케첩 통으로는 신나는 바이킹을 만들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만들 수 있는 인기 폭발 알라딘 체험관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놀이기구에 이름표를 붙이고 자유이용권 팔찌를 나눠주었다. “환상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제가 운전하는 데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내가 롤러코스터를 잡고 빨리 움직이면 고모와 동현이도 빨리 움직이고 내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이면 고모와 동현이도 느릿느릿 움직였다.

그리고 최고 속도로 360도 회전하면 고모와 동현이도 방안을 빙글빙글 돌며 360도 회전했다. “우와! 재미있다. 정말 재미있다.” “으악! 나 살려!” 우리가 만든 놀이기구들은 정말 재미있고 신났다. 땀이 뻘뻘 났지만 더운 줄도 몰랐다. 놀이기구를 다 탄 다음 알려진 재활용 체험관으로 들어갔다. 고모는 짹짹 우유팩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 동현이는 우당탕탕 소란을 피우며 열심히 장난감을 만들었다. “우와! 고모, 이게 뭐야?” “응, 양말 통이야.” 고모는 우유팩으로 양말 통을 만들고는 “이 통에 양말을 넣어서 보관하면 양말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보기도 깔끔해서 좋아.” 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다. “와! 신기하고 멋지다.” 나는 재활용품들이 재미있고 신나는 놀이기구로 변신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분리수거만 잘 해도 깨끗한 우리 국토를 만들 수 있단다.” 고모의 말씀에 나는 깨끗한 국토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다. 분리수거를 잘 하고 전기와 물을 아껴쓰는 것도 우리 국토를 아끼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고모, 우리 다음에는 재활용품으로 뭘 할까?” “음……. 다음에는 싱크대를 변신시켜볼까?” “좋아, 좋아. 우리가 재활용품들 깨끗하게 씻어서 모아둘게.” 나는 이제 재활용품들을 모으고 분리수거하는 일이 즐거워졌다. “다음에는 어떤 변신이 있을까?” 두근두근 다음 시간이 기대된다.